

## 로버트 배노이, 대선지자, 강의 16

이사야, 주님의 종 주제 계속

### 8. 이사야 49:1-12

이사야 49 장 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의 구절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덟 번째입니다. 여기에는 1-9절이 포함되지만 아마도 12절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주님의 종에 관한 주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기 49장부터 종의 주제가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42장의 주요 구절 중 하나인데, 그 외에도 여기저기서 한두 구절에 주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9장부터 그 내용이 훨씬 더 강조되어 53장에서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49장 1-9절에서 종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 봅시다. “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섬들아; 너희 먼 나라들아 이것을 들으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느니라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분은 나를 빛나는 화살로 만드시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감추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나는 헛수고를 했습니다. 나는 내 힘을 헛되이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갚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나의

상급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모태에서 자기 종으로 지으시고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으시려고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앞에 영광이 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그가 말한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고 내가 지킨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나도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을 베풀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시요 거룩한 자 여호와께서 민족에게서 멸시와 미움을 받는 자, 고관들의 종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왕이 너를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보고 절하리니 신실하신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택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땅을 회복하며 그 황폐한 기업을 다시 분배하여 포로된 자에게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자유하라 하게 하리니 길가에서 먹으며 메마른 언덕마다 풀밭을 찾을 것이다 .'"

이사야 49:1-9에 대한 일반 해설

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1-9절에서 종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 5절, 6절, 7절에서는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3절에서는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궁이 그의 종이 되리라.” 6절에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3절, 5절, 6절 그리고 7절 중간에 “관원들의 종에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49장 8절과 9절에는 42장, 6절, 7장에서 사용된 문구 중 일부가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리라.” 49:8에도 있고 42:6에도 있습니다. 49:9, “포로된 자에게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유하라.” 이것은 42:7, “포로된 자를 감옥에서 풀어 주고 풀려나게 하려 하심이라”와 비슷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을 지하 감옥으로 보내라.” 그래서 여기서는 42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누구인지 물을 때 이 구절은 3절에서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그에게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절 에 이르면 말하는 자가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아 자기에게로 돌아오라 나는 여호와 앞에 영광이 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거기에 있는 “나”는 확실히 이스라엘과

구별되며 종은 야곱을 그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내려가면 “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돌이키며 내가 지킨 이스라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너무 작은 일이니라 ” 고 하십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회복시키소서 . 그러므로 5절과 6절에서 종이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 두 구절에는 종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임을 가리키는 세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종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종이면서 이스라엘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종이 “이스라엘” 로 불리고 이스라엘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3절에서는 그 종이 “이스라엘” 이라고 불리지만, 5절과 6절에서는 그 종이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세 가지 진술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앞의 구절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종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눈먼 눈을 뜨게 하고, 죄수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박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할 것이고, 그 일은 이스라엘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시고 백성과 백성들에게 언약이 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갇힌 자를 흑암에서 구출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

개인적인 표현은 여기 49장에서 이미 사용된 것 같지만, 더 나아가면 50장에서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종에 대해 사용된 개인적인 문구는 종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개인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개인임을 암시하지만 그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9장에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지으셨으니”(바로 거기서 당신은 개별화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으라 나는 여호와 앞에 영광이 되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종,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지만 이스라엘과 구별되거나 구별되는 종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사야 49:1 종과 그 어머니의 관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구절에 나오는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흥미롭습니다. “바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먼 곳 사람들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는데 NIV가 그것을 다른 말로 번역한 것은 다소 불행한 것 같습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먼 나라들아 들으라 내가 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느니라 내 이름을 언급했어요 .” 이제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와 비교합니다. 히브리어는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며 내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나를 이름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과 관련하여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씨로 언급합니다. 당신은 그런 족장적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엔 여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뱀을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적어도 같은 종류의 생각이 제시됩니다. “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내 어머니의 몸에서부터 부르셨느니라.”

자궁과 어머니에 대한 모든 언급은 NIV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은 종의 개별화를 암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내 어머니의 몸에서 부르셨느니라.”

#### 이사야 49:2 종의 효능과 보호

2절은 동의어 평행법으로 반복되는 두 가지 개념을 제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효율성과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만드셨도다” 라고 읽은 다음, 병행구절로 “나를 윤이 나는 자루로 만드셨도다” 라고 읽습니다. 그 구절을 네 개의 문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만드셨도다” 가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는 첫 번째와 평행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윤이 나는 샤프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두 번째와 평행을 이룬다. “그가 나를 그의 화살통에 숨기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게 만드셨도다” , “나를 윤이 나는 자루로 만드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그의 입은 날카로운 칼 같고, 그는 닦은 자루 같으니라 . 이는 종의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을 언급합니다. 또 다른 생각은 보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고” “그분께서 나를

그의 전통 속에 숨기셨느니라.” 모든 악한 세력이 그 종의 일을 멸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호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유능하고 종은 보호받는다.

이사야 49:3-4 개별화된 종 이스라엘

그러면 49장 3절에 다음과 같은 신분이 있습니다. “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은 4절을 가져옵니다. “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노라. 나는 내 힘을 헛되이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갚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나의 상급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3절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이스라엘이 4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는 진술을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는 내 힘을 헛되이 낭비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4절을 집단적, 즉 국가가 아닌 개별화된 종으로 보는 것이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화된 종은 자신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노라” - 종은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였습니다 - “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나이다. ” 그의 작업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 내가 내 힘을 헛되이 허비하였느니라. 그러나 나에게 값아야 할 것은 여호와와 손에 있고 나의 상급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 그의 생각은 그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그는 정당성을 입증받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 궁극적으로 종의 개인화된 말과 아주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5-6 이스라엘과 분명히 구별되는 종

그리고 5절과 6 절에서 그 종이 이스라엘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와 눈에 영광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돌이키며 내가 지킨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 작은 일이라 하셨느니라 나도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겠다 .’ ”

5절에 보면 그 종은 야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니와 그 곳의 종은 이스라엘과 구별이 되느니라. 그러나 6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는 종의 일은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더 큰 일에 비하면 거의 미미합니다. “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굽의 지파들을 회복시키며 내가 지키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리니 너희가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지 아니할 것임 이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종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사야 49:7 종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사야 49장 7절은 종의 낮아지는 것과 나중에 높아지는 것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구속자시요 거룩한 자 여호와께서 민족에게서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자 곧 통치자들의 종에게 이르시되 ” 굴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 후반부에서 대조됩니다. “ 열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고관들이 보고 절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여호와 곧 너를 택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함이니라 .”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구절이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 그들은 종, 즉 포로 생활을 하고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으나 나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집합적 개념을 봅니다.

이사야 49:8-9 이스라엘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일 나는 그것이 이 구절의 진술을 실제로 정당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특히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다음 두 구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켜 백성의 언약을 삼고 땅을 회복하며 그 황폐한 기업을 다시 분배하여 포로된 자에게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자유하라 하게 하리니 그들은 길가에서 먹이를 주며 모든 척박한 언덕에서 풀밭을 찾을 것입니다 .” 8장과 9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이스라엘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42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7a절에서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굴욕을 당했지만 그것은 그녀의 죄 때문이었고 그러한 굴욕은 결코 8절과 9절의 성취로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전체 주제는 52장 끝 부분에 도달할 때 훨씬 더 분명하게 전개됩니다. 53.

이사야 49:10-11 종을 따르는 자의 축복

4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그들은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사막의 더위와 해가 그들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샘물 옆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절에서 종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샘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내 대로를 돋우리라.” 그것은 “모든 골짜기가 돋우어지며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리라”는 40장 초반 부분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49:12 전세계적인 귀환

그리고 49장 12절: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오며 보라 이들은 북서쪽에서 오며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느니라.” 당신은 종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규모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심지어 이 시님 땅에서도 올 것이다. NIV는 이를 “아스완 지역에서”로 번역하지만 텍스트 메모가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아스완; 마소라 본문, 시님.” 인용문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34페이지 메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EJ Young, 294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창세기 10장 17절, 대상 1장 15절에 나오는 신족과 동일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죄 광야에 호소가 이루어졌습니다(제롬). JH Michaelis(1775)는 본문을 *s<sup>e</sup> wenim* 으로 수정 하고 이집트 남부의 Sin 또는 Pe

leusium(Aswan)에 대한 언급을 의미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1Q” (쿰란 두루마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음을 제공합니다 *swnyym*, 아마도 *s<sup>e</sup>-wa-niy-yim* 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 중 하나의 이름으로 식별되고 실제로는 특별히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의 북쪽과 바다 서쪽과 적절한 대조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 곳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 언급은 땅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진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중국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랍어 *tin o/* 이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단적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먼 지역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은 이 구절의 의미가 종의 추종자가 될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범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님 땅.”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소' 관계를 말할 때 중국에 적용되는 뿌리가 있습니다.

요약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 하늘이여, 기뻐 외쳐라. 땅아,

기뻐하라. 산 들이여, 노래를 부르라 !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 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로다 .” 주님께서 당신 종의 일을 통해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 하늘과 땅이 기쁨으로 터질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3. 이사야 50:4-11 이방인 주제에 대한 빛      좋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 이사야 49장 1-12절에는 종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 흐르는 모호함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개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개별화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41:8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다음 43:10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들이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복수형입니다. 49:1 에서는 이미 개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0:4-9 개별화된 종의 고난에 대한 일반 해설

다음 구절은 이사야서 50:4-11의 개요에서 9번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주요 종의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1~7절이고, 두 번째는 49장 1~9절이다. 이사야 50:4-11은 세 번째 주요 구절이다. 여러 곳에서, 특히 42:6, 7, 49:6에서 우리는 종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진술을 읽었습니다. 42:6과 7, 49:6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묶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이 일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실제로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러한 일을 성취하실 방법을 알려 줍니다.

그 방법이나 수단은 실제로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놀라운 반전이 필요합니다. 먼저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교훈된 혀를 주사 피곤한 자를 붙드는 말씀을 알게 하셨느니라.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며, 내 귀를 깨우쳐 가르침을 받는 사람처럼 듣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습니다. 나는 조롱하고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러면 누가 나를 고발하겠습니까? 우리 서로 마주보아요! 나의 고발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맞서게 해주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주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헤어질 것이다. 나방이 그들을 먹어치울 것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말을 청종하는 자가 누구이느냐? 어둠 속에 행하는 자, 빛이 없는 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제 불을 피우고 햇불을 준비하는 너희는 가서 너희 불과 너희가 놓은 햇불의 빛 가운데로 행하라. 네가 내 손에서 받을 것은 이것이니 곧 네가 고통 중에 누우리라 .”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이 겪게 될 고통과 그것을 통해 성취할 큰 정당화를 묘사한 종의 진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묘사하는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은 새로운 생각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거의 전개되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다시 질문은 이것이 종 개인으로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 동안 국가로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냐는 것이다. 49장 7절 앞부분에 나오는 종의 굴욕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개인화된 종입니까? 제 생각에는 50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가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5절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그 하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역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의 뜻 행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6절에 보면 그가 자원 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조롱하고 침을

뺨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 이제 50장 5절과 6절의 진술은 이사야서 이 부분의 이전 장에 포함된 이스라엘의 그림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귀먹고 눈멀고 반역하는 종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는 패역하지 않았다” 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2:19-24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포로로 보내졌습니다. “ 내 종, 내가 보낸 사자 외에 귀머거리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 ? 나에게 맡겨진 사람처럼 눈먼 사람, 여호와와 종처럼 눈먼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야곱을 노략거리가 되도록 넘겨주셨으며 이스라엘을 노략꾼들에게 넘겨주셨는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냐? 43 장 23절과 24절에 “ 너희는 번제할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희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소제를 드리는 일로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향을 요구함으로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당신은 나를 위해 향기로운 창포를 사지 않았고, 당신 제물의 기름을 나에게 아낌없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죄로 나를 무겁게 하고 너희 범죄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 48:8에서: “ 너희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귀는 예로부터 열리지 않았느니라. 나는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반역자라고 불렸습니다 .”

이사야 50:4 학식 있는 자의 혀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상대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돌이켜 말하기를 나는 패역하지 아니하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내 앞에 맡겨진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느니라 다른 구절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 50장의 화자는 국가적 의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고난을 겪는 개별화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0장 4절에 “ 주 여호와께서 내게 교훈된 혀를 주사 피곤한 자를 붙드는 말씀을 알게 하셨느니라 ” 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종의 가르치는 일에 관한 진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학문 있는 자의 혀” 를 주셨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복음서 이야기에 나오는 진술, 예를 들어 요한복음 7:46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느니라!” 예수께서는 가르칠 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 주 여호와께서 내게 교훈된 혀를 주사 피곤한 자를 붙드는 말씀을 알게 하셨느니라 ”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그가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내 귀를

깨우쳐 학자 같이 듣게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종과 아버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그를 깨우시며 그의 귀를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0:5 종은 반역하지 아니한다 50장 5절에서 나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진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항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일에 충실했으며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0:6 자발적인 고난

그다음 50장 6절: “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습니다. 나는 조롱하고 침을 뱉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은 비자발적인 고통과 대조됩니다. 이스라엘은 큰 기쁨으로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사야 53장이 이렇게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침  
뺨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사야 50:7 그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세우소서 -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  
이제 내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50장 7절을 보시고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했습니다 .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나이다 .” 종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수행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합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9장 53  
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얼굴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직면하고 수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나이다 .”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 초에 8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고 이사야 52  
장과 53장을 살펴보고겠습니다.

Maya Bam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Carly Geiman의 초기 편집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 가 다시 해설함